

인공지능 폰트 스타일러

팀 7 to 12

7기 이수빈

10기 신훈철

11기 이영전

12기 김탁영

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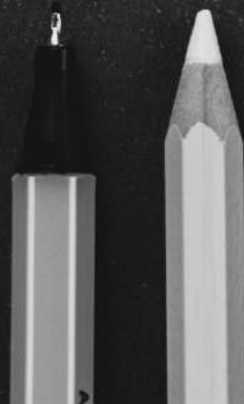
프로젝트 배경 및 개요

데이터

임베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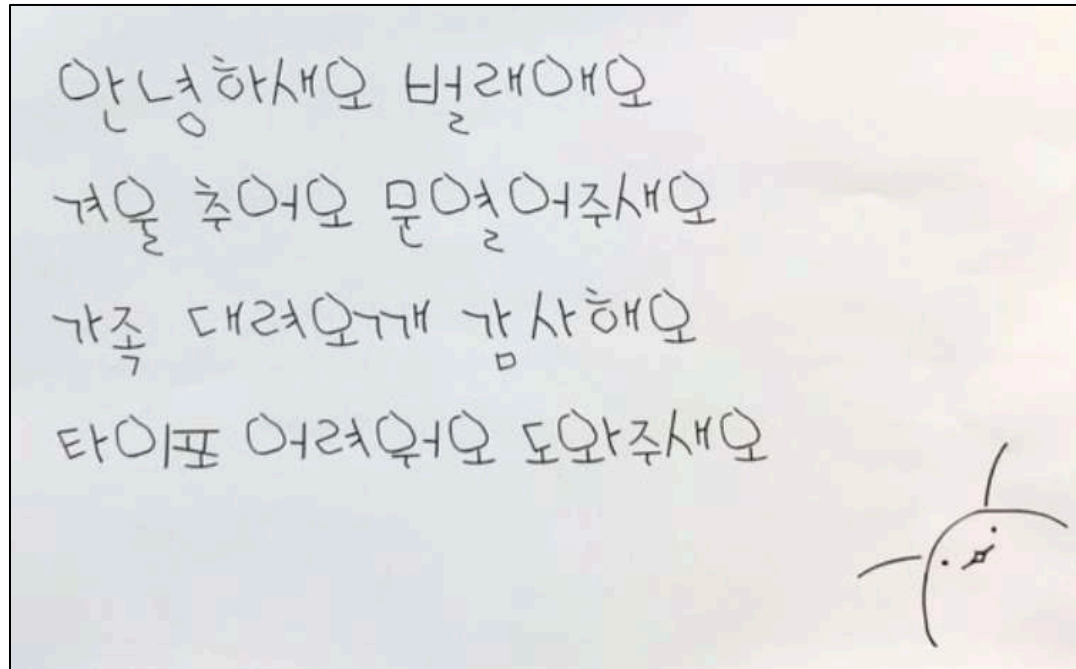
모델 구조

결론 및 의의



포트의 힘

1. 프로젝트 배경 및 개요



벌레가 귀여워 보이는 현상

프로젝트 구상

1. 프로젝트 배경 및 개요

원하는 느낌을 입력하면
느낌에 맞는 폰트를 출력

인공지능
포트
스타일러

그냥 죽여줘..

원하는 느낌의 정도를 조절

ငါ့ဝါဒ

사용 데이터 - 글자

2. 데이터

3. 임베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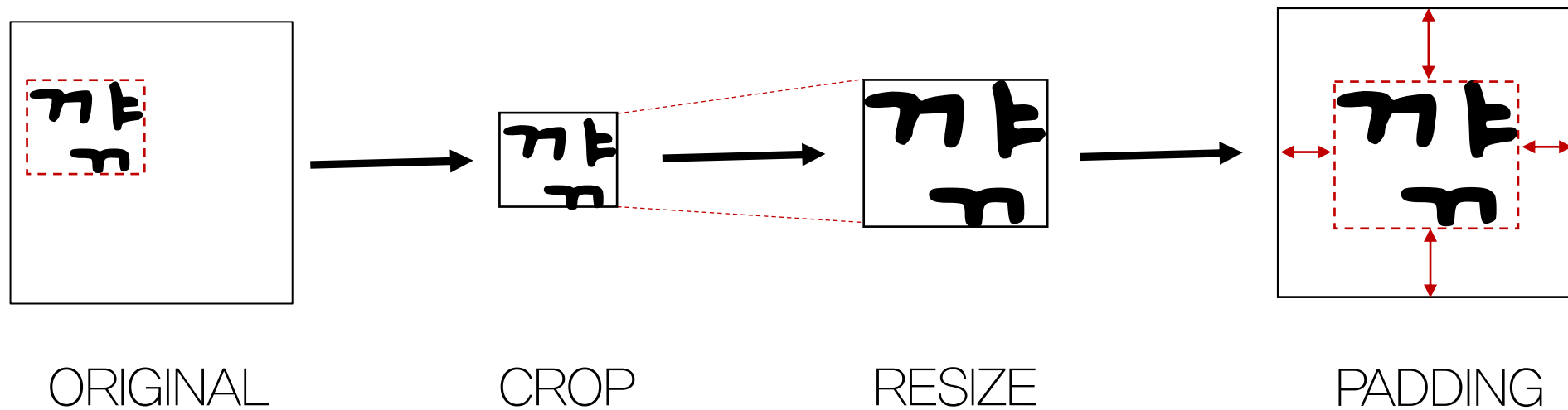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상용 한글 2350자

전체 데이터 개수
107개 폰트 * 2350자 = 251,450개

데이터 전처리

2. 데이터

폰트의 종류와 상관없이 **균일한 형태**의 데이터 확보

임/박/김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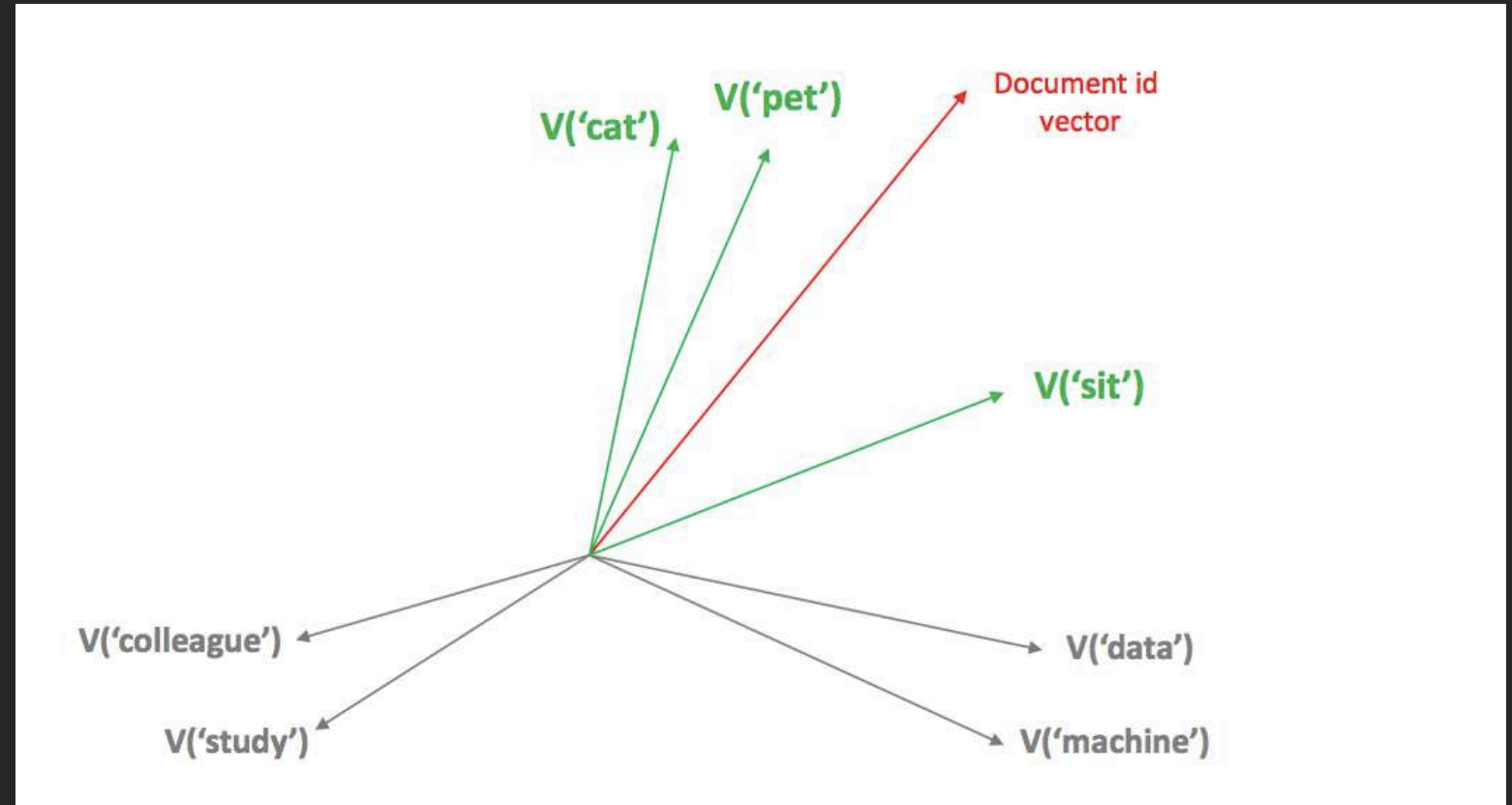
임베딩 네트워크 – Doc2Vec

3. 임베딩

Doc2Vec

- ✓ 네이버 손글씨 폰트 소개말을 20차원의 벡터로 변환
- ✓ 각 소개말을 임베딩하여 폰트의 설명값으로 사용
- ✓ 소개말이 시적인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서사적인 노래 가사 3만 곡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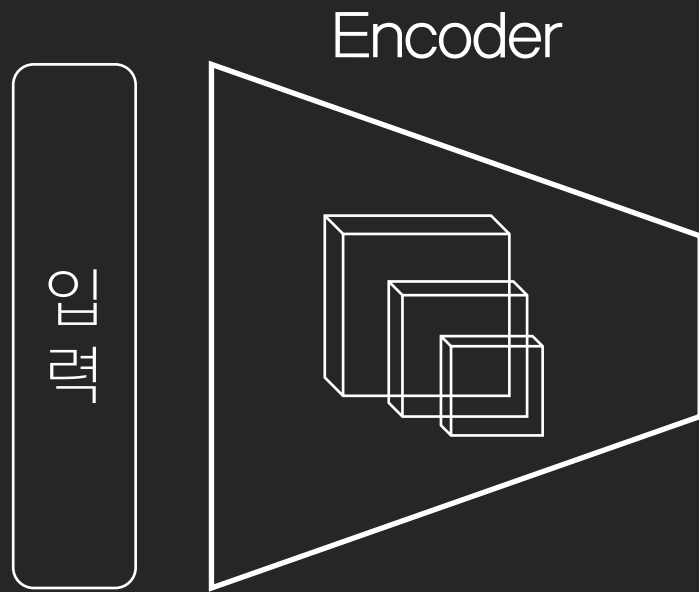
https://lovit.github.io/nlp/representation/2018/03/26/word_doc_embedding/



Document ID와 각 문서(혹은 문장)에 등장하였던 단어 좌표의 평균으로 document vector를 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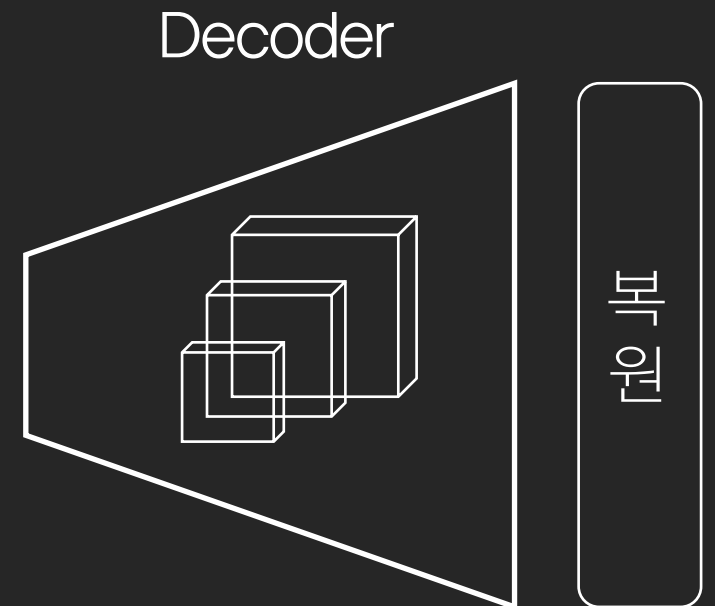
임베딩 네트워크 – Latent Vector

3. 임베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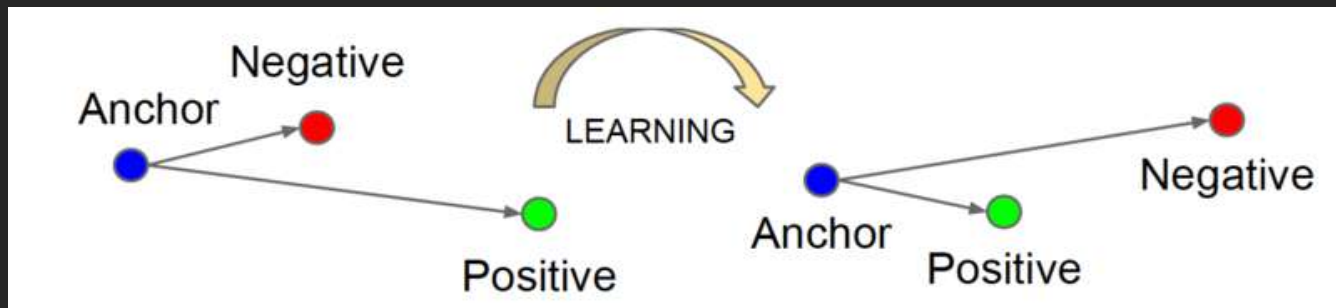
Latent Vector

- ✓ Convolutional AutoEncoder로 학습한 128차원의 벡터 사용
- ✓ 임베딩 벡터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Conv AE 사용
- ✓ ‘닭’, ‘카테고리나뉘어랏’ 등의 단어로 실험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



임베딩 네트워크 – Triplet Network

3. 임베딩



3개의 데이터 묶음

1. Anchor : 기준 데이터
2. Positive : Anchor와 같은 클래스
3. Negative : Anchor와 다른 클래스

Positive 관계의 데이터는 가깝게,
Negative 관계의 데이터는 멀게 학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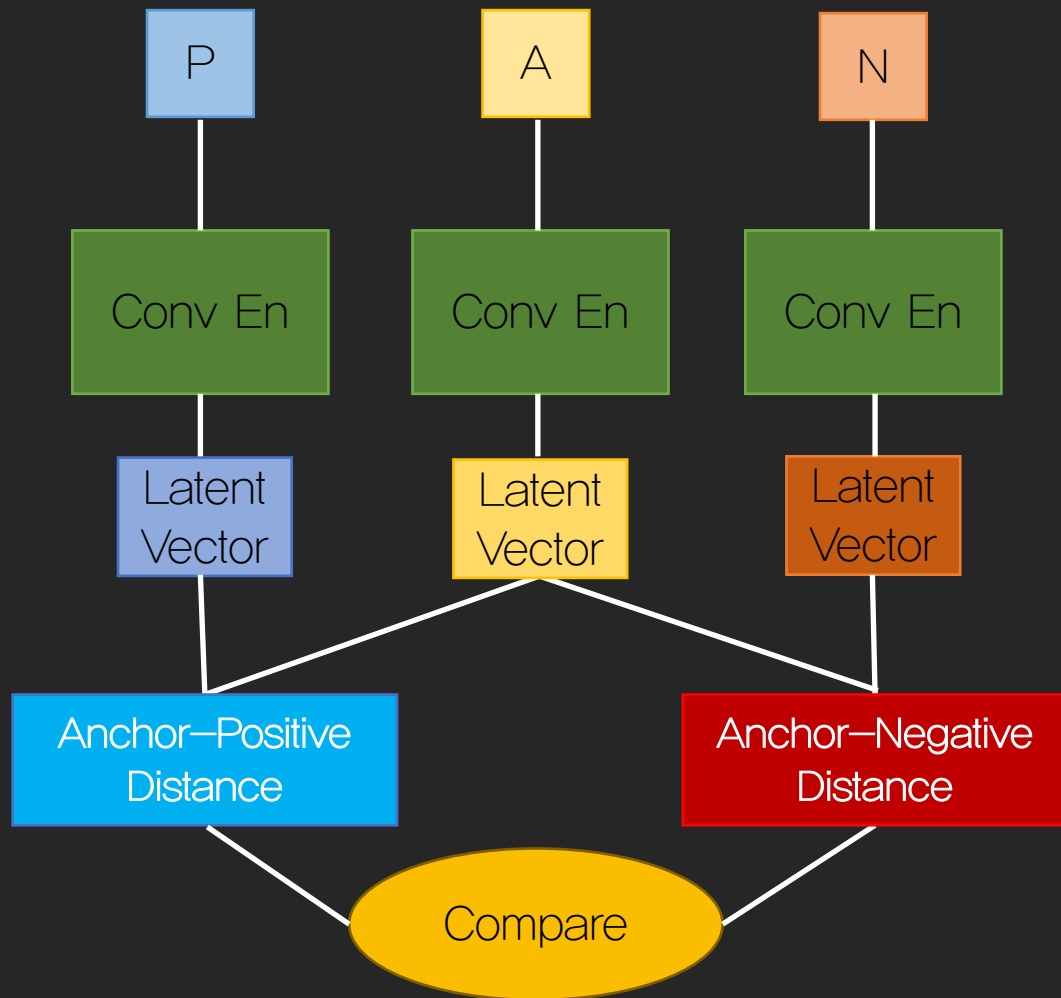
Euclidean Distance + L2 Norm & Margin

Triplet Network

- ✓ 1) 같은 폰트끼리 뭉치도록
- 2) 같은 글자끼리 뭉치도록
- ✓ 같은 기준끼리 뭉치도록 학습된 결과를 t-SNE로 시각화
- ✓ 두 경우 모두 잘 뭉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
임베딩 네트워크 – Triplet Network

3. 임베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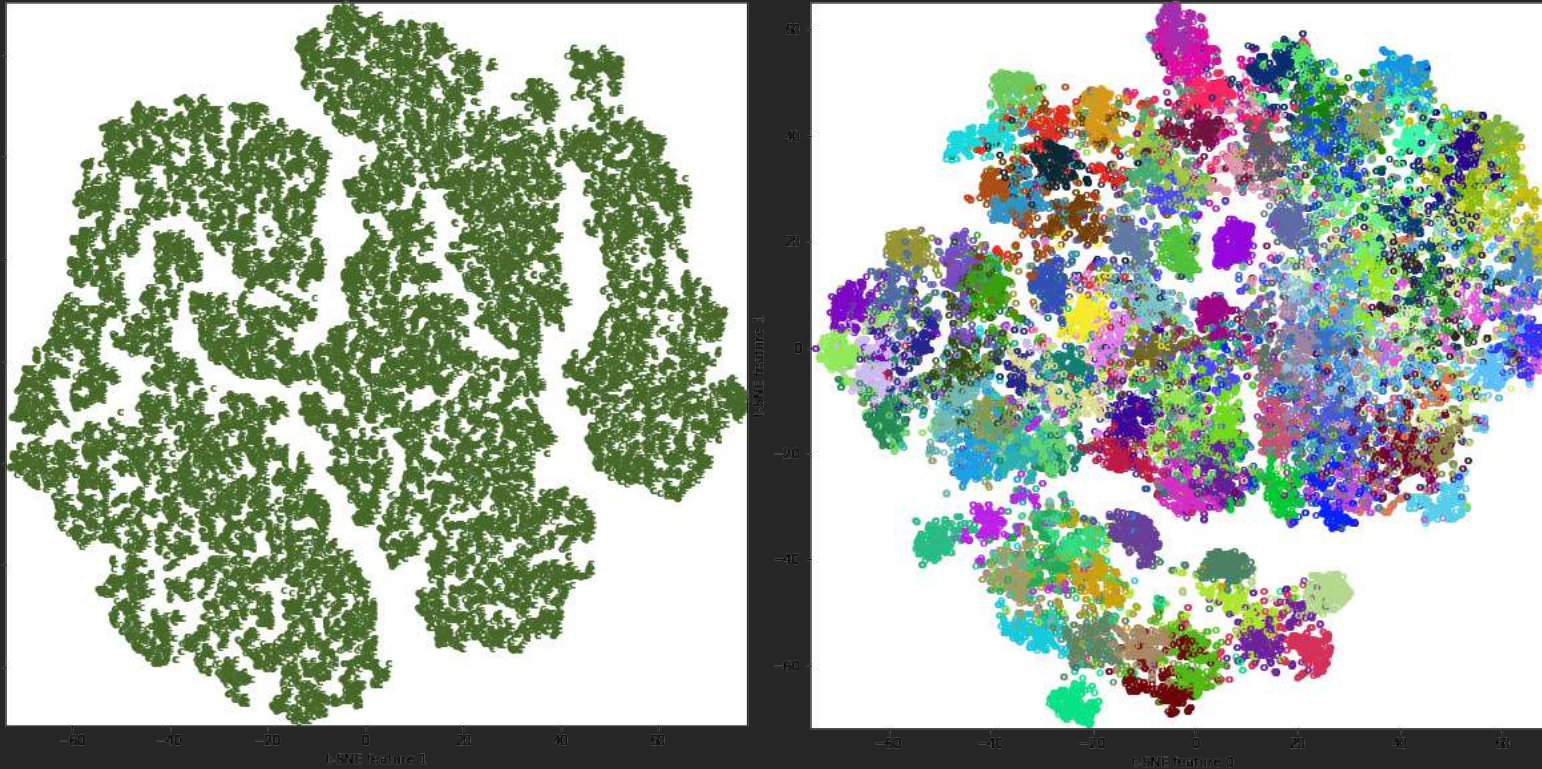
Triplet Network

- ✓ 1) 같은 폰트끼리 뭉치도록
- 2) 같은 글자끼리 뭉치도록
- ✓ 같은 기준끼리 뭉치도록 학습된 결과를 t-SNE로 시각화
- ✓ 두 경우 모두 잘 뭉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
임베딩 네트워크 – Triplet Network

3. 임베딩

[CASE 1] 같은 폰트끼리 뭉치는가? - 시각화



어느 정도 군집이 형성되고, 같은 폰트 클래스끼리 잘 뭉치는 것을 확인

Triplet Network

- ✓ 1) 같은 폰트끼리 뭉치도록
- 2) 같은 글자끼리 뭉치도록
- ✓ 같은 기준끼리 뭉치도록 학습된 결과를 t-SNE로 시각화
- ✓ 두 경우 모두 잘 뭉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
임베딩 네트워크 – Triplet Network

3. 임베딩

[CASE 1] 같은 폰트끼리 뭉치는가? - 시각화



0: 시크한 날씬이



1: 배진 코흘리개



2: 정성스러운 범생이

Triplet Network

- ✓ 1) 같은 폰트끼리 뭉치도록
- 2) 같은 글자끼리 뭉치도록
- ✓ 같은 기준끼리 뭉치도록 학습된 결과를 t-SNE로 시각화
- ✓ 두 경우 모두 잘 뭉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
임베딩 네트워크 – Triplet Network

3. 임베딩

[CASE 1] 같은 폰트끼리 뭉치는가? - 시각화



3: 과감한 완벽주의자



4: 여유로운 베틀장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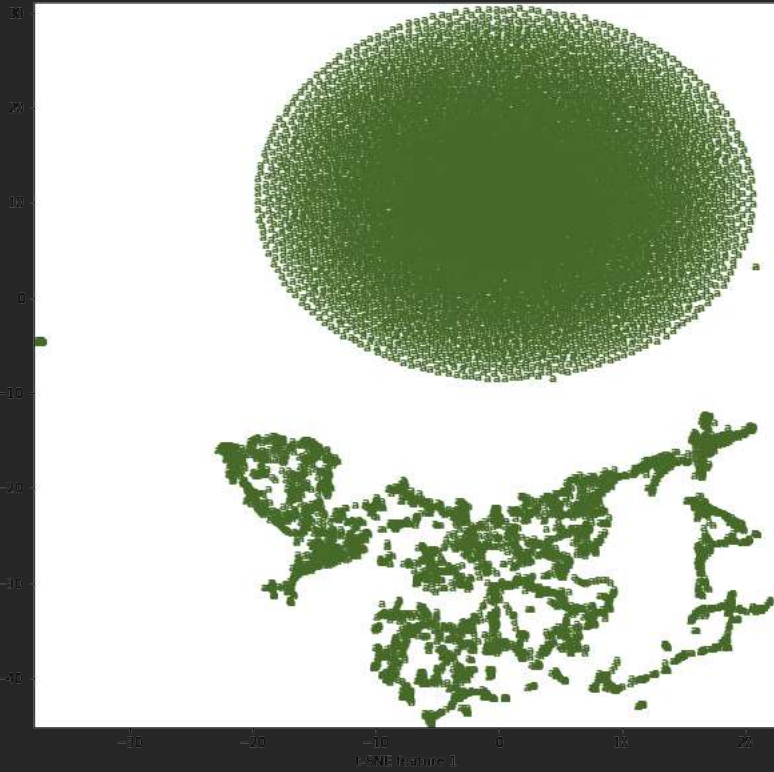
Triplet Network

- ✓ 1) 같은 폰트끼리 뭉치도록
- 2) 같은 글자끼리 뭉치도록
- ✓ 같은 기준끼리 뭉치도록 학습된 결과를 t-SNE로 시각화
- ✓ 두 경우 모두 잘 뭉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
임베딩 네트워크 – Triplet Network

3. 임베딩

[CASE 2] 같은 글자끼리 뭉치는가? - 시각화



Triplet Networ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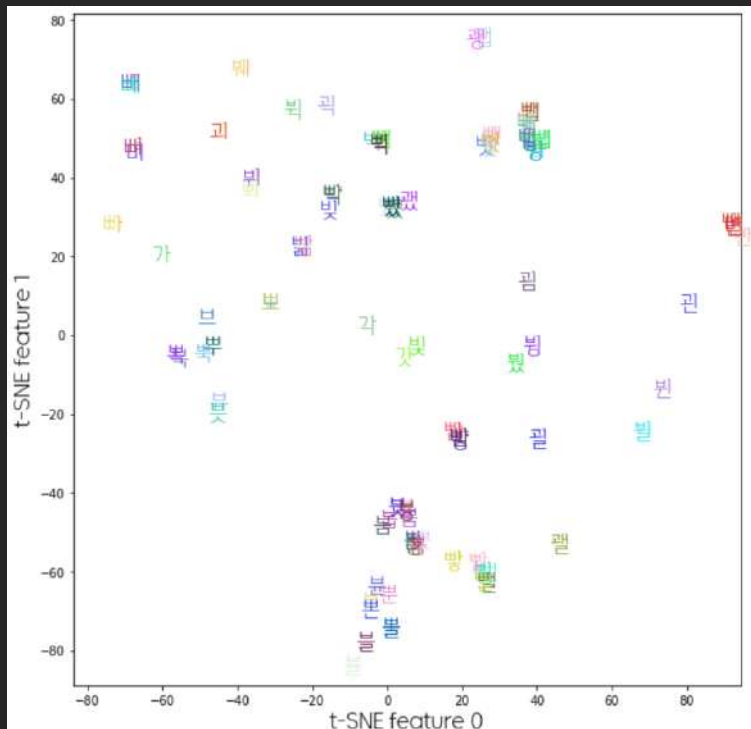
- ✓ 1) 같은 폰트끼리 뭉치도록
 - 2) 같은 글자끼리 뭉치도록
-
- ✓ 같은 기준끼리 뭉치도록 학습된 결과를 t-SNE로 시각화
-
- ✓ 두 경우 모두 잘 뭉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
=====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=====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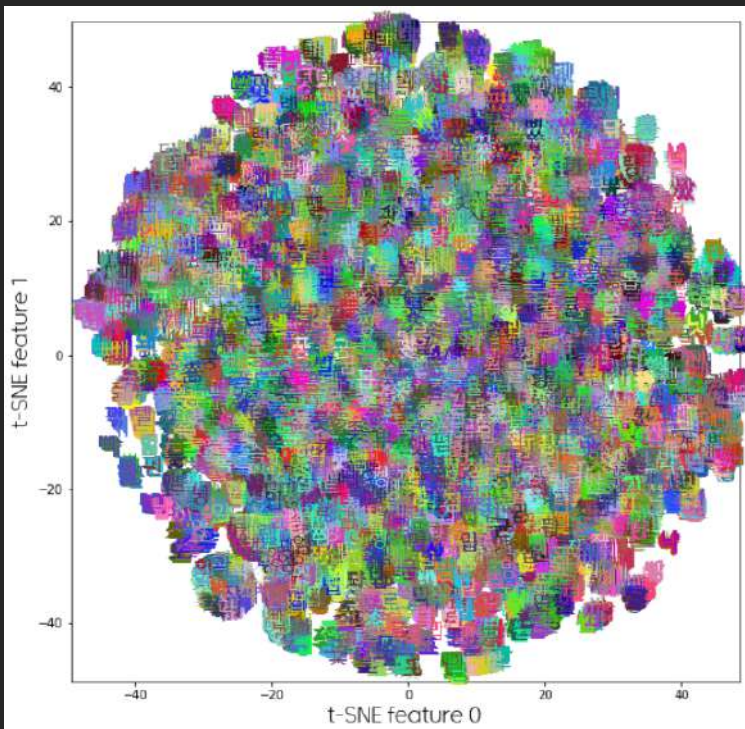
임베딩 네트워크 – Triplet Network

3. 임베딩

[CASE 2] 같은 글자끼리 뭉치는가? - 시각화



100자
픽-뵡 / 분-뽀 / 각-갓



2350자
같은 글자 = 같은 색

Triplet Network

- ✓ 1) 같은 폰트끼리 뭉치도록
- 2) 같은 글자끼리 뭉치도록
- ✓ 같은 기준끼리 뭉치도록 학습된 결과를 t-SNE로 시각화
- ✓ 두 경우 모두 잘 뭉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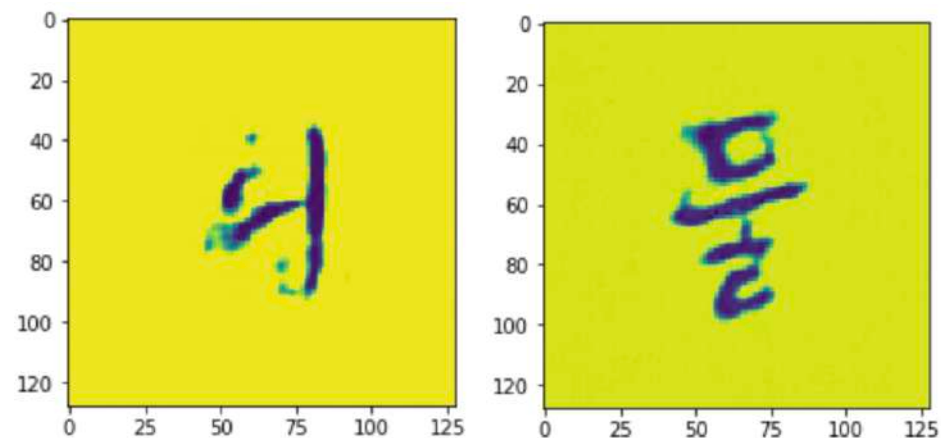
모델 구조

절혼 및 의의

생성 결과물

5. 결론 및 의의

글자 생성 결과물 - Doc2Vec



‘서울’이라는 글자에 ‘함께하는 복지도시’라는 느낌을 담은 output

Word

Feel

생성 결과물

5. 결론 및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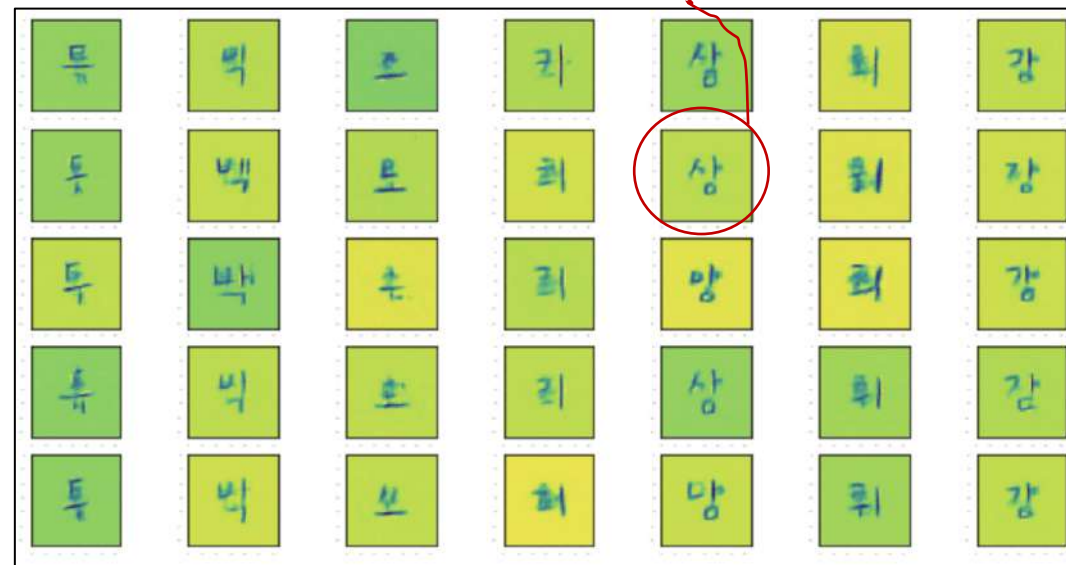
인코더를 통과한 z벡터 + letter vector + category vector

글자 생성 결과물 - Triplet

Gaussian Random Vector + letter vector + category vector



이상적인 결과



실제 결과

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?

5. 결론 및 의의

2. Z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KLD Loss 도입

ITERATION	-	loss:	0.07942	mse:	0.07941	kld:	0.00001:	25%		3160/12632	[00:44<0
ITERATION	-	loss:	0.08620	mse:	0.08619	kld:	0.00001:	25%		3170/12632	[00:45<0
ITERATION	-	loss:	0.06758	mse:	0.06757	kld:	0.00001:	25%		3180/12632	[00:45<0
ITERATION	-	loss:	0.07880	mse:	0.07879	kld:	0.00001:	25%		3190/12632	[00:45<0
ITERATION	-	loss:	0.07573	mse:	0.07572	kld:	0.00001:	25%		3200/12632	[00:45<0
ITERATION	-	loss:	0.07974	mse:	0.07973	kld:	0.00001:	25%		3210/12632	[00:45<0
ITERATION	-	loss:	0.07468	mse:	0.07467	kld:	0.00001:	25%		3220/12632	[00:45<0
ITERATION	-	loss:	0.08012	mse:	0.08011	kld:	0.00001:	26%		3230/12632	[00:45<0
ITERATION	-	loss:	0.07342	mse:	0.07342	kld:	0.00001:	26%		3240/12632	[00:46<0
ITERATION	-	loss:	0.08204	mse:	0.08204	kld:	0.00000:	26%		3250/12632	[00:46<0
ITERATION	-	loss:	0.08726	mse:	0.08725	kld:	0.00001:	26%		3260/12632	[00:46<0
ITERATION	-	loss:	0.06150	mse:	0.06149	kld:	0.00000:	26%		3270/12632	[00:46<0
ITERATION	-	loss:	0.08704	mse:	0.08704	kld:	0.00000:	26%		3280/12632	[00:46<0
ITERATION	-	loss:	0.09302	mse:	0.09302	kld:	0.00000:	26%		3290/12632	[00:46<0

Z 공간은 바로 수렴
그러나 MSE가 줄어들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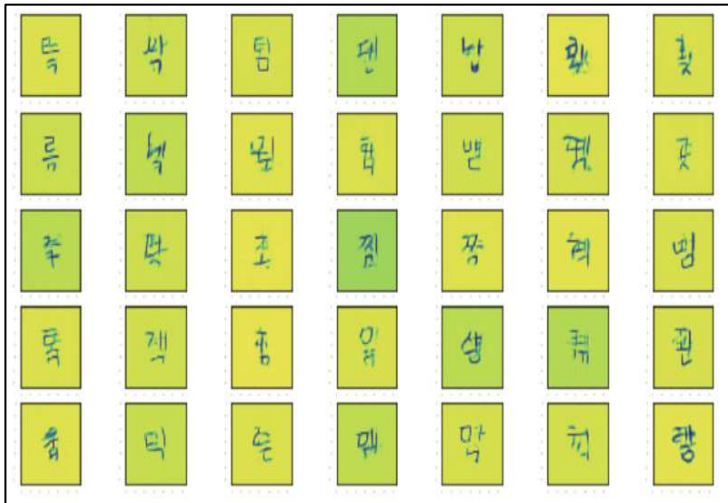


KLD term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
Beta term (penalty)을 도입
($10e-5$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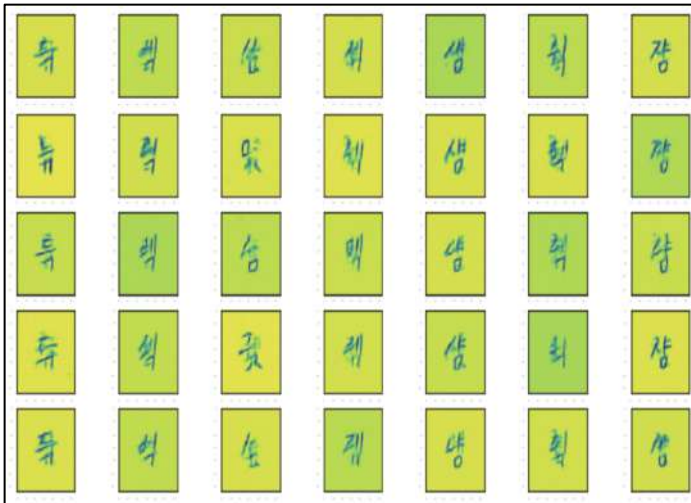
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?

5. 결론 및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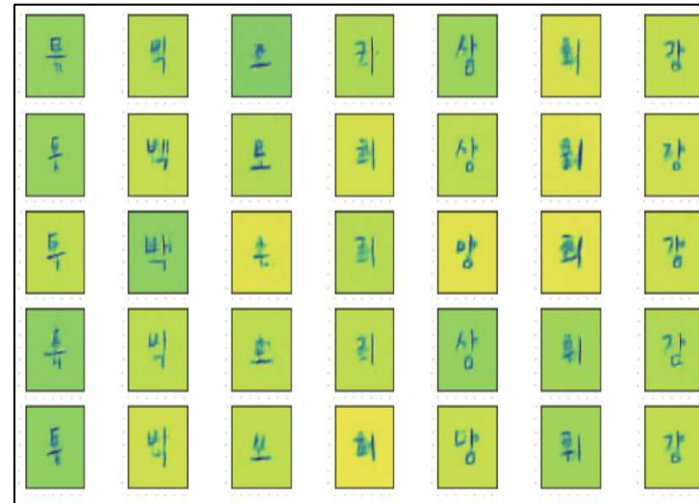
3. Bottleneck Size 조정



Bottleneck size=32, KLD
(with gaussian random vector for z)



Bottleneck size=16, KLD
(with gaussian random vector for z)



Bottleneck size=8, KLD
(with gaussian random vector for z)

Bottleneck size가 줄어들수록 점점 ‘투빅스지상최강’의 모습과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

(Z의 영향을 줄일수록 상대적으로 embedding vector의 역할이 커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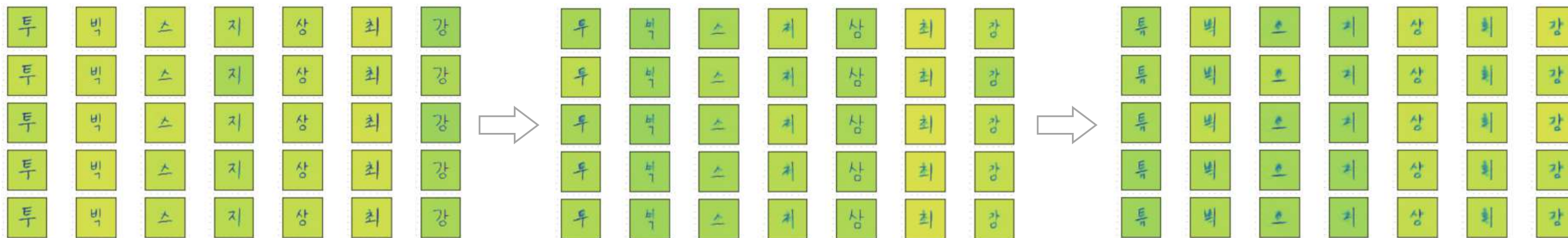
→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!

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?

5. 결론 및 의의

5. Category Vector의 영향에 대한 확인

0 category로 얻은 $z + \text{category vector} + \text{letter vector}$



Category vector의 차이로 결과에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움.
아무래도 같은 글자의 폰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
그 미묘한 차이를 폰트 카테고리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임.
(Category vector도 업데이트할 여지가 있어 보임)

의의 및 한계점

1. 프로젝트 배경 및 개요

3. 임베딩

5. 결론 및 의의

정리

폰트를 복원하는 것이 condition 보다는 폰트 이미지 자체의 latent vector 값에 매우 dependent했음.

따라서 폰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condition의 영향을 키우는 동시에 z의 영향을 줄이는 데에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할애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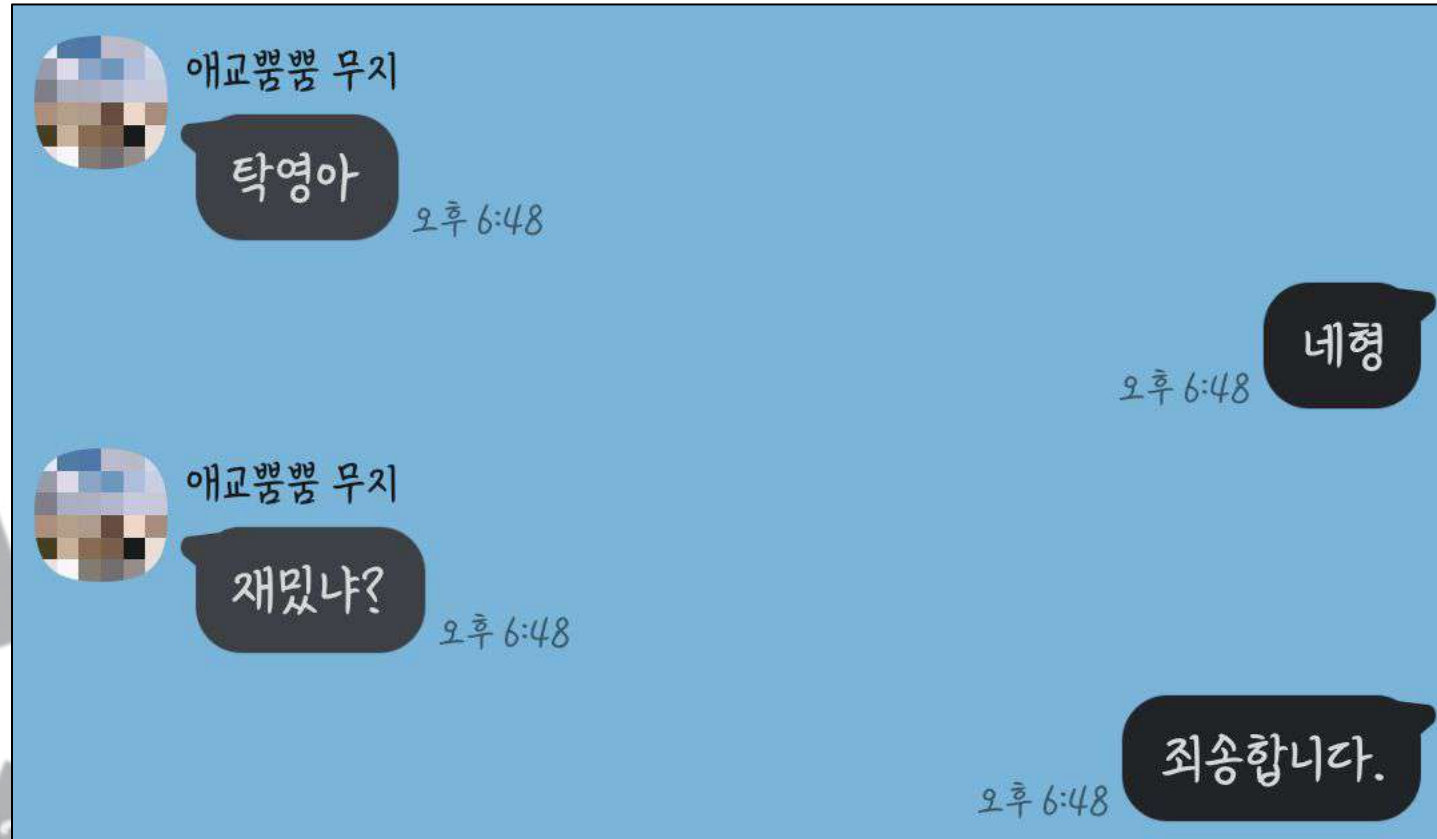
Z의 dimension을 줄이고, condition에 가중치를 주는 등의 시도를 하였지만, Condition에 dependent한 결과가 나올 만큼의 개선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.

Future Work

- Condition으로 추가된 embedding vector에 대해 아키텍처 내부에서 update를 진행
- Embedding vector의 차원 및 scale에 대한 변화
- Condition의 영향을 키워주기 위해 discriminator 이용 및 그 오차를 네트워크에 전파

마무리

5. 결론 및 의의



쉽지 않습니다.

마무리

1. 프로젝트 배경 및 개요

3. 임베딩

5. 결론 및 의의

(수면부족)

(가) (하) (나) (다)

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점

- 아이디어에 맞춘 새로운 네트워크를 직접 디자인 & 구현
- Z 값을 실제로 plotting해 보고, 그에 맞는 weight도 직접 출력해 본 경험
- Git, Notion 등의 협업 툴에 익숙해지는 경험

(분노)

$$\left(\begin{array}{ccc} | & \square & \vee \\ \hline \text{하} & \text{하} & \text{하} \\ \hline \text{하} & \text{하} & \text{하} \end{array} \right)$$

(절교)

thanks!

